

2009학년도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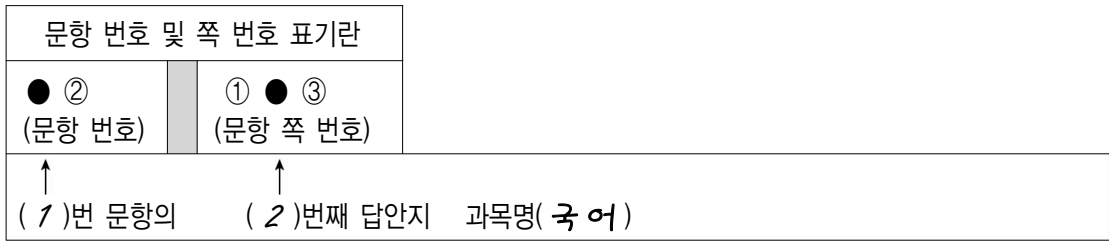
일반사회

수험 번호 : () 성 명 : ()

2차 시험	2 교시 (전공)	2문항 50점	시험 시간 120 분
-------	-----------	---------	-------------

수험생 유의 사항

1. 문제지(초안 작성 용지 포함)와 답안지의 전체 면 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시오. **답안지는 문항당 2쪽(교시당 4쪽), 초안 작성 용지는 교시당 4쪽**입니다.
2.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수험 번호, 문항 번호,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해당란에 '●'로 표기하시오.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 필기구(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를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4. 답안 좌측 상단의 문항 번호와 답안지 쪽 번호, 과목명을 직접 쓰고 답안을 작성하시오.
(예시) 국어 과목의 1교시 1번 문항, 2번째 답안지 표기



5. 수학과 과학 과목의 답안지는 가운데 선을 그어 좌우의 2단으로 나누어 답안을 작성해도 됩니다.
6. 답안지에는 문항 번호 외에 문항 내용을 일체 옮겨 적지 마시오. 단, 하위 문항이 있을 경우, 하위 문항의 번호(1-1, 1-2 등)를 답안지 앞부분에 한 번 더 쓰고 답안을 작성하시오.
7. 답안은 문항별로 답안지의 새로운 면에 작성(단, 하위 문항은 이어서 작성해도 됨)하고, 해당 문항의 답안 작성이 완료되면 **답안 마지막 문장의 뒤에 반드시 <끝>이라고 쓰시오.**
8. 답안 초안 작성은 문제지의 맨 뒷부분에 있는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시오.
9. 답안 수정 시에는 해당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쓰시오.
10.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 연필로 작성한 부분
 -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답안란 이외에 작성한 부분
 - 답안란에 개인 정보를 노출한 답안지 전체
 - 답안란에 개인 정보를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
11. 답안지 교체 시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12. **작성하지 않은 답안지도 문항별 쪽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4쪽 모두 제출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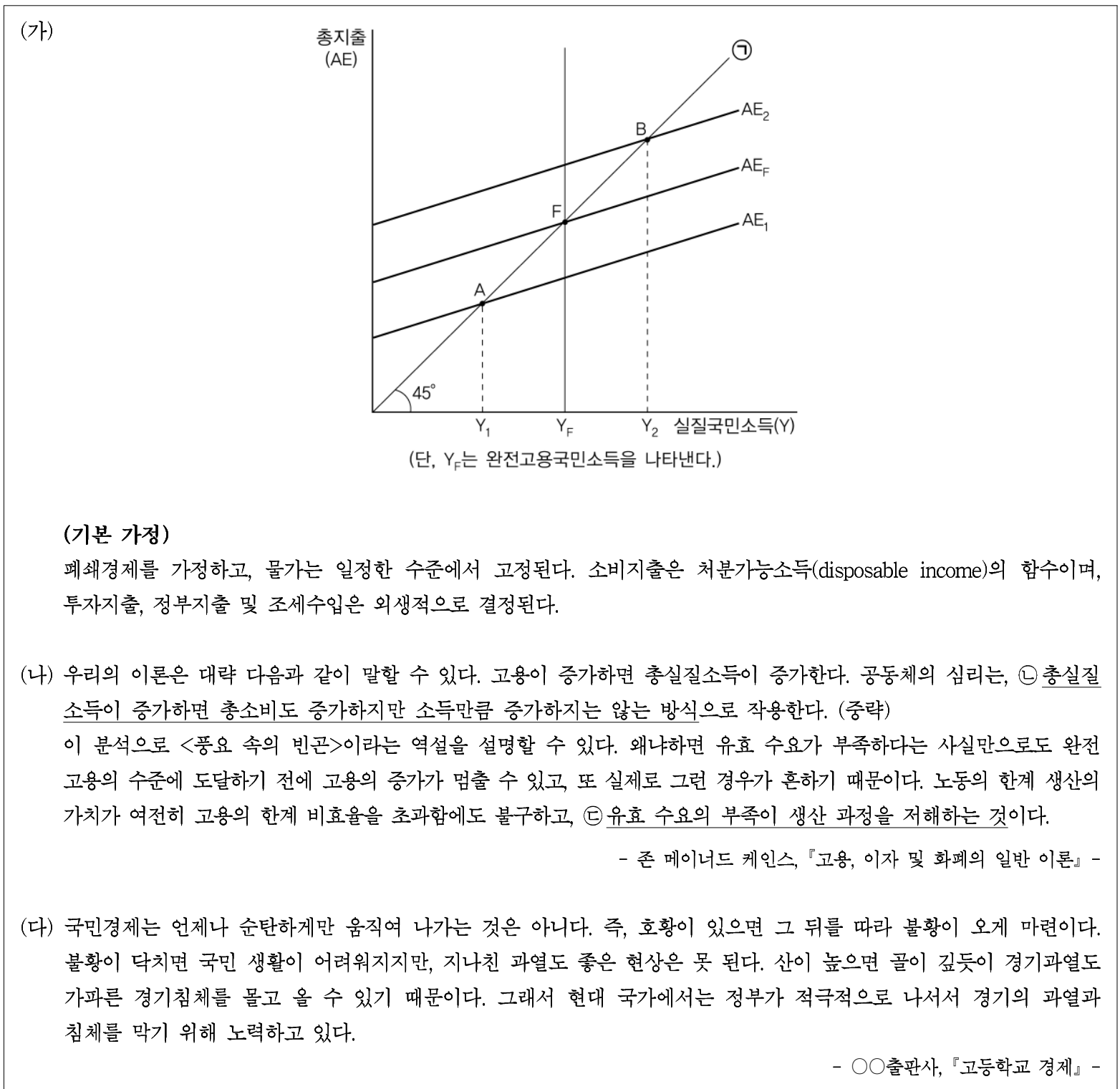
3. 다음은 대의제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대립되는 두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두 견해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견해를 밝힌 다음, 선호하지 않는 견해를 소개하고 비판하면서, 선호하는 견해를 명료화하고 옹호해 보시오. 【25점】

대의제가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체제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민에 의한’ 정치체제라기보다는 ‘대표에 의한’ 정치체제라고 볼 수 있다. 대의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표가 통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200여 년 전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에서는 선거인과 닮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가 선거인과 닮아야 한다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았다.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의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들의 이익에 의해 통제되어야만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가 대리하고 있는 사람들과 최대한 닮아야 한다.” “대표는 선거인들의 처지와 필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껴야 하고,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해야 한다.” 이 주장들이 의미하는 바는, 선거인들을 닮은 대표가 선거인들의 정치의사를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들은 대표를 선거인들의 대리인(delegate)으로 보는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표가 선거인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헌법의 목적은 사회의 공공선을 분별할 수 있는 최상의 지혜와 최상의 덕목을 갖춘 사람을 통치자(대표)로 얻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그(대표)가 여러분의 의견을 받들고자 자신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 주장들이 의미하는 바는, 가능한 한 최상의 지혜와 덕목을 갖춘 대표가 정치문제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들은 대표를 선거인들의 수탁자(trustee)로 보는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한 나라의 거시경제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4-1. 그래프에서 ㉠의 45°선의 의미를 설명하고, ㉠의 의미를 (가)의 총지출(AE) 곡선의 기울기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그리고 ㉠ 상황은 (가)의 A, F, B 가운데 어느 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지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4-2. (다)의 내용을 토대로, ㉠ 상황에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각 경제정책의 정의와 전달경로를 밝히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 상황에서의 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시오. (단, 구축효과는 없다고 가정한다.) [10점]

수고하셨습니다